

손재희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

요약

최근 마약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국내 청년층의 수가 증가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온라인 환경변화로 인한 마약류 약물의 손쉬운 구매, 학업성취 및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무분별한 복용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미국은 공·사보험이 약물 중독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 관리를 위해 교육과 치료 보장 확충에 대한 공·사 보험기관의 체계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최근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치료를 받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청년층의 수가 증가해 이에 대한 우려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의 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10대 및 20대의 경우 각각 34%,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으로 분류되는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 수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감소했지만 1인당 처방량, 특히 20세 미만의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은 크게 증가함³⁾
- 마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⁴⁾의 오·남용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음
 - 19세 이하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⁵⁾

○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구매 가능한 온라인 환경변화, 학업성취 및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무분별한 마약류 약물 복용이 이러한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한 펜타닐 패치도 SNS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학원가 일대 병원에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온라인상 불법 다이어트약 매매가 이뤄진 사례도 있음⁶⁾
- 전문가들은 의료용 약물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약물이라는 인식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의 심각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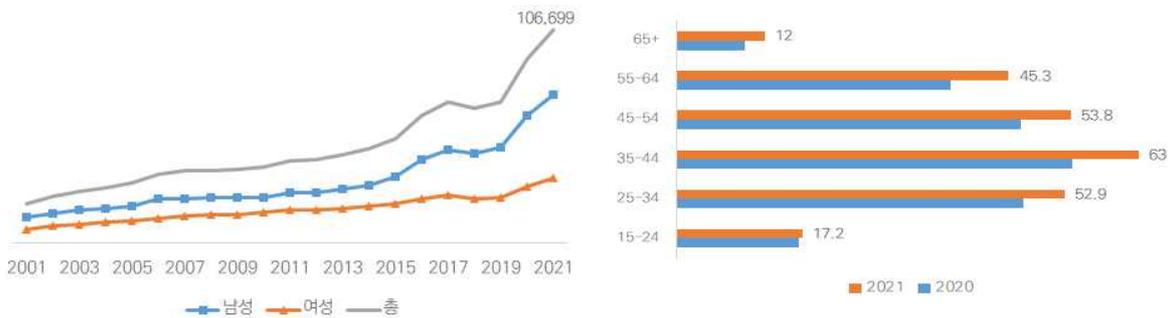
1) 마약류 약물이란 마약(양귀비, 아편, 몰핀, 펜타닐, 페디딘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졸비ेम 등) 및 대마를 말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의 자료 참고
 3) 전체 환자의 1인당 처방량이 2019년 대비 2022년 약 4.2% 증가한 것에 비해 20세 미만의 경우 동기간 84.2% 증가함. 다만,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의한 투약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의료용 마약류 주요 통계(2019~2022년))
 4)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아 중단이 어려우며,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감, 우울증, 불안, 환각 등의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대검찰청(2022), "19세 이하 마약류 범죄 현황"(서동용 의원 분석 자료 인용)
 6) 각각 연합뉴스(2023. 6. 27); KBS 뉴스(2023. 10. 12); 조선일보(2023. 11. 9) 참조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미 마약류 약물 중독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미국도 코로나19 이후 합성 오피오이드 종류 중 하나인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는 등 약물 남용 및 중독⁷⁾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⁸⁾

- 미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699건을 기록하였고, 그 중 오피오이드에 의한 사망 비율이 약 75.4%로 약물 중독 사망 급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세부 통계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 사망자 수가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중 35~44세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펜타닐을 포함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이 급증함(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 2008년 미국 약물 중독 사망이 교통사고 사망을 초과한 이후 상해사망 원인 1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1년에도 약물 중독 사망(10만 명당 33.7명)은 교통사고 사망(13.7명) 및 총기사고 사망(14.7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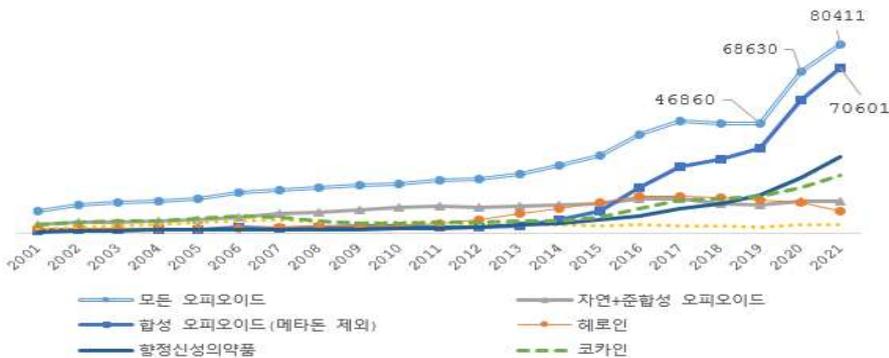
〈그림 1〉 미국 마약류 약물 중독 사망자 수 추이(2001~2021년) 〈그림 2〉 미국 연령별 약물 중독 사망률(2020, 2021년)
(단위: 명) (단위: 10만 명당 사망자 수)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Mortality File

〈그림 3〉 미국 마약류 약물별 중독 사망자 수 추이(2001~2021년)

(단위: 명)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Mortality File

7) 약물 남용은 의사 처방 없이 또는 처방과 달리 약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감정이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비의학적·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약물 남용은 약물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8) Merianne Spencer et al(2022. 12), "Drug Overdose Deaths in the United States, 2001-2021", *NCHS Data Brief*, No. 457

- 약물 중독 문제가 개인의 상해·사망을 초래하는 위험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진화함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약물 중독 관련 의료·보건 정책을 마련해 옴
 - 오바마 정부는 약물 중독을 범죄 문제로 다루기보다 공중 보건 측면에서 접근한 최초의 정부로, ‘21st Century Cure Act’ 서명 등을 통해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접근성 제고 및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의사 처방 교육을 확대해 옴
- 미국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하에 ‘약물 사용 장애 치료’가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10대 필수 의료혜택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사보험이 약물 중독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¹⁰⁾을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KFF(Kaiser Family Foundation) 조사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중독 장애의 약 40%의 치료비를 메디케이드가 보정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 중독 치료 접근성 확대와 촉진에 공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¹¹⁾
 - 민영 건강보험으로 오피오이드 중독 장애 치료를 보장받은 비중은 24%로 나타남
 -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state)별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 및 범위에 일관성이 없고 민영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은 종류, 기간, 금액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장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¹²⁾
- 우리나라도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중독 치료의 보장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사보험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청소년기 약물 오·남용 경험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며 집단 특성상 전파력이 빨라 중독 및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함
 - 올해부터 마약류 약물 중독자 치료 보호의 급여가 적용¹³⁾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¹⁴⁾가 추진되는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치료시설 및 전문가,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그동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를 급여화(치료비용의 70%)하여 제공하고, 본인부담(30%)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
 - 전국 25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3년 7월 첫 개소)이 있지만, 실질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은 적은 것으로 알려짐¹⁵⁾
 - 최근 국내 보험회사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¹⁶⁾은 매우 고무적이나 향후 예방교육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9) 2001년부터 약 20년간 약물 중독 사망은 100만 건을 초과하였고, 이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의료체계, 형사사법 시스템,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에 연간 1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10) 공보험 및 민영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약물 중독 장애 치료 담보에는 해독치료(detoxification), 장기 재활(long-term rehab), 외래 치료(IOP), 부분 입원(PHP) 등이 있음

11) Kendal Orgera and Jennifer Tolbert(2019), “The Opioid Epidemic and Medicaid’s Role in Facilitating Access to Treatment”

12) Gomez et al(2022. 6), “Insurance barriers to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after passage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parity laws and the affordable care act: A qualitative analysis”

13)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23년 11월 28일)

14)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2024. 1. 5) 보도자료)

15) 최연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의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2023년 7월)

16) 약물 오·남용 예방 가이드 발간 후원,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추진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그룹홈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시행 등